

은행 예·적금 이자 1% 시대 다시 온다

기준금리 0.25%P 인하 ... 시중은행 이번 주 금리 내릴 듯
가입 계획 있다면 수신금리 2%대 사라지기 전에 서둘러야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하함에 따라 시중은행들도 이르면 이번 주부터 수신금리를 내릴 것으로 보인다. 인하 폭은 0.1~0.3%포인트로 예상되는 가운데 이자 인하 폭을 두고 은행 간 '눈치 싸움'이 벌어질 전망이다. 수신상품의 기본 금리가 다시 1%대로 접어들기 전에 예·적금 가입을 서두르려는 고객들도 잇따르고 있다.

21일 금융권에 따르면 신한·KB국민·우리·KEB하나·NH농협은행 등 5대 은행의 대표 예금 상품의 1년제 기본금리는 최고 1.9%다.

한국은행이 금리를 인하하기 이전에도 시중은행에서는 2%대 이자를 주는 예금상품은 찾기 어려운 실정이었다. 이번에 추가 인하가 이뤄지면 본격적으로 연 1%대 금리 시대가 올 전망이다.

신한은행의 '쏟아진 정기예금'이 기본금리 1.6%에 우대금리 0.11%포인트를 준다. KB국민은행의 '국민수퍼정기예금'은 기본금리 1.65%에 우대 0.3%포인트, 'KB Smart 폰예금'은 기본 1.75%에 0.6%포인트의 우대금리를 준다.

우리은행의 '위비 슈퍼 주거래 정기예금'은 기본 1.90%에 최고 2.40%의 이자

를, KEB하나은행은 'N플러스 정기예금'은 기본 1.80%에 최대 2.10%의 이자를 준다.

적금 상품은 1년제 기본금리가 최대 2.2%로 이자가 조금 후한 편이지만 크게 차이 나지는 않는다.

신한은행 '신한스마트 적금'은 기본금리 2.2%를 주고 별도 우대금리는 없다. 국민은행 'KB맑은하늘적금'은 기본 1.9%에 0.8%포인트 우대 금리를, 'KB 1코노미 스마트적금'은 기본 2.15%에 우대 0.6%포인트의 금리를 제공한다.

우리은행 '위비 슈퍼 주거래 정기적금'은 기본 1.40%의 금리에 최고 2.70%까지 이자를 준다.

하나은행 '급여하나월복리적금'은 기본 1.70%에 최고 3.0%까지 금리를 받을 수

있다.

은행들은 신상품 개발과 수수료 조정 등을 위한 작업을 진행하고 있지만 속내는 복잡하다. 수신금리를 조정하게 되면 당장은 '내줘야 하는 이자'가 줄어 수익성 측면에서 유리할 수 있지만 고객 자금 이탈을 가속할 수 있기 때문이다.

고객 입장에서선 여차피 예·적금에 들 계획이 있었다면 서두르는 게 좋다. 금리 조정이 이뤄지기 전에 가입하는 게 0.01%포인트의 이자라도 더 챙길 수 있기 때문이다.

일정금액을 하루만 맡겨도 약정한 우대금리를 제공하는 광주은행의 '머니파킹통장' 등 은행별로 내놓은 특관상품으로 고객이 몰릴 것으로 보인다.

/백희준 기자 bhj@연합뉴스

2019 KJ Card 콘서트

광주은행, 10월 12일 광주여대 유니버시아드체육관

YB·다비치·이상우 출연

광주은행(은행장 송종욱)은 '2019년 KJ Card 콘서트'를 오는 10월 12일 오후 7시에 광주여대 유니버시아드체육관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지난 2017년부터 시작해 올해로 세 번째를 맞는 이번 콘서트는 KJ카드를 사용하는 고객을 대상으로 펼쳐지며 YB(윤도현밴드), 다비치, 이상우가 출연 예정이다.

광주은행 KJ카드 전회원은 인터넷 홈페이지, 모바일앱, 스마트폰 앱을 통해 22일부터 9월 8일까지 K포인트로만 콘서트 티켓을 응모할 수 있고, 9월 16일에 개별 문자 통지를 통해 당첨자를 발표한다. 만약 K포인트가 없거나

부족한 개인신용카드회원의 경우에는 최대 2매까지 K포인트를 우선 사용하고, 부족금액은 11월에 청구된다.

광주은행 김재중 카드사업부장은 "세 번째 콘서트를 개최할 수 있도록 광주은행 KJ Card에 많은 사랑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고객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며 "고객님의 성원에 보답하고, 지역 공헌문화 활성화에 보탬이 되고자 알차게 준비한 콘서트에 많은 고객님들과 함께할 수 있길 바랍니다"고 말했다.

콘서트 응모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광주은행 홈페이지(www.kjbank.com) 또는 고객센터(1577-3650)를 통해 확인 가능하다.

/최재호 기자 lion@kwangju.co.kr

한전, 호치민에서 '한국-베트남 스마트 전력에너지' 전시회



한전은 21일 '한국-베트남 스마트 전력에너지 전시회'에서 214만4000달러의 수출 상담성과를 거뒀다고 밝혔다. <한전 제공>

세계각국 250여개사 참가 참관객 2만여명 방문 '성황'

한국전력(대표이사 사장 김중갑)은 지난 17일부터 20일까지, 성남방 정책의 중심국가인 베트남 호치민에서 '2019 한국-베트남 스마트 전력에너지 전시회(KOSEF 2019)'를 개최했다.

세계각국 250여개사가 참가하고 2만여명의 참관객이 방문한 이번 전시회에서 한전은 우수 전력기자재 판로개척과 전력회사간 기술교류를 위해 전력분야 우수 중소

기업 50개사와 시장개척단을 구성했다.

한전은 글로벌 브랜드 파워와 해외 네트워크를 활용해 해외바이어 130개사와 중소기업 비즈미팅을 주선하면서 수출 상담을 지원 하는 등 베트남 시장에서 우리나라 전력분야 중소기업들의 수출 판로를 개척하는 데 앞장서 214만4000달러의 수출 성과를 거두었다.

또한, 베트남 전력회사(EVN NPT) 경영진과 간담회를 통해, 상호협력 방안 논의 및 네트워크를 구축하였으며 베트남 기계전기협회와 MOU도 체결해 양국간 전력분야에서 지속적인 협조를 위한 기반을

마련했다.

이와함께 송-배전분야 진단기술, 한전형 에너지관리시스템(K-SEMS) 등 해외수출이 유망한 분야를 중심으로 '전력신기술 컨퍼런스'를 개최했으며, 11월 광주에서 개최 예정인 'BIXPO 2019'(빛가람국제전력기술엑스포) 홍보 활동도 병행했다.

한전관계자는 "한전은 앞으로도 우수 중소기업이 해외시장 수출 판로를 개척하고,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중소기업으로 성장하는 초석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속가능한 동반성장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최재호 기자 lion@kwangju.co.kr

아름다운 마을 가꾸기

광주은행 등 12개 금융기관

광주시 북구와 함께

광주은행, 농협, 새마을금고, 신한 등 12개 금융기관이 광주시 북구와 함께 '아름다운 마을 가꾸기'에 나선다.

북구는 "오는 24일 지역사회 공헌을 희망하는 12개 금융기관 대표와 10개 동 주민자치위원회·동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아름다운 마을을 가꾸기 위한 '마을만들기사업장 공동관리 협약'을 맺는다"고 21일 밝혔다.

이 협약은 2000년부터 조성된 마을만들기사업장 시설 248곳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마련됐다.

협약을 맺은 12개 금융기관과 10개 동 주민자치위원회는 공원, 텃밭 등의 시설에 대한 환경정비·보수 작업을 함께할 예정이다. 또 자원봉사 유공자 표창 등을 지원한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 로도복권 (제868회)

당첨번호						2등 보너스숫자
12	17	28	41	43	44	25
등위						당첨자수
1	6개 숫자일치	3,233,804,250				6
2	5개숫자+ 보너스숫자일치	53,013,185				61
3	5개 숫자일치	1,502,698				2,152
4	4개 숫자일치	50,000				109,133
5	3개 숫자일치	5,000				1,789,491

보험 권유 설계사 믿을만할까? ... 한번에 조회 가능

e-클린보험서비스 가동

22일부터 보험 소비자 자에게 보험을 권유하는 설계사와 대리점(GA)과 관

련한 각종 정보를 손쉽게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이들의 불완전판매 등 이력을 인터넷·모바일로 즉시 조회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생·손보험회는 'e-클린보험서비스'(www.e-cleanins.or.kr)를 22일 가동한다고 21일 밝혔다. e-클린보험서비스는 인터넷과 모바일로 가동되는 보험 판매제일 통합정보시스템으로, 보험 모집 질서를 확립하고 투명성을 높이는 취지에서 마련했다. /연합뉴스



현대차그룹이 세계 최초로 개발한 ASC기술이 적용된 쏘나타 하이브리드 시스템.

현대차, 하이브리드 변속기술 세계 최초 개발

현대자동차그룹이 하이브리드차량(HEV)의 기술적 난제였던 변속기 성능을 혁신적으로 개선한 기술을 개발했다.

현대차그룹은하이브리드차의 주행모터를 활용한 '능동변속제어'(ASC, Active Shift Control) 기술을 세계 최초로 개발했다고 21일 밝혔다.

이 기술은 이달 출시하는 신형 쏘나타 하이브리드를 비롯해 현대차그룹의 신차에 순차적으로 적용된다.

현대차그룹이 독자 개발한 'ASC 제어 로직'은 하이브리드차를 구동하는 주행모터를 활용해 자동변속기를 초당 500회씩 초정밀 제어하는 신기술이다.

이를 통해 변속에 걸리는 시간이 기존 하이브리드차보다 30% 빨라져 주행성능과 연비, 변속기 내구성 등 3가지 요소를 동시에 개선할 수 있게 됐다.

실제 신형 쏘나타 하이브리드는 이전 세대보다 연비가 10% 이상 높아져 중형 세단 최초로 복합연비가 20km/l를 넘어섰고, 정지상태에서 시속 100km까지 가속하는 시간(제로백)은 0.2초 단축됐다.

이는 엔진 효율 향상과 경량화, 에어로

다이나믹 외에도 이번에 개발한 ASC 기술이 기여했다. ASC 기술은 세계 최초로 주행 모터로 하이브리드차의 다단 변속기를 정밀 제어해 효율을 높여준다.

기존 하이브리드차는 대부분 다단 변속기를 사용하면서 연비를 높이기 위해 일반 자동변속기에 들어가는 동력변환장치인 토크컨버터를 사용하지 않아 변속이 느리거나 변속 충격이 발생할 수 있는 구조적인 한계가 있었다. 이에 따라 변속감 등 운전의 감성이 내연기관차에 비해 다소 떨어지고 추월 등 급가속이 필요한 순간에 때때로 변속이 지연되는 경우도 있었다.

그러나 ASC 기술이 적용되면 별도 추가 장치가 없어도 하이브리드 제어기의 로직만으로 주행 모터가 변속기까지 제어하기 때문에 이런 단점들을 상당 부분 줄일 수 있다고 현대차그룹은 설명했다. 현대차그룹은 ASC 기술과 관련해 현재 미국 6건을 포함해 유럽연합(EU), 중국 등 주요 국가에 20여건의 특허를 등록했다.

/박정욱 기자 jwpark@kwangju.co.kr

고의사고 | 허위입원 | 허위청구 | 과잉진료 | 확대수리

한 사람의 보험범죄 전국민의 경제부담

2016년 9월 30일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시행!

날로 지능화되는 보험사기에 늘어나는 국민손실,
보험사기는 심각한 범죄입니다.
보험사기, 반드시 적발됩니다.

손해보험협회